

효성家, AI 중심 새판짜기… 조직 신설에 핵심사업 정리

계열분리 1년, 미래 먹거리 발굴

조현준·조현상, AI 전략 엇갈린 행보
효성, 실적 격차 속 성장방향 재정립
HS효성, 연구인력 확충·신소재 집중

효성과 HS효성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조직과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분주하다. 계열 분리 1년을 맞아 각사별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업 구조 전환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를 매개로 하는 경영 전략 변화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최근 미래전략실을 신설했으며 실장으로 김철호 효성벤처스 대표를 선임했다. 김대표는 투자 및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효성그룹의 중장기 성장 방향을 설계할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래전략실 신설 배경으로는 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룹 차원에서 사업 조정과 신사업 발굴, 전략 수립 등의 필요성이 커진 점이 꼽힌다. 계열사 간 실적 격차가 뚜렷해지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의 매출은 각각 1조761억원, 6394억원으로 약 68% 차이를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효성화학은 같은기간 5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반면 효성중공업은 102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효성그룹 마포 본사 전경.

/뉴시스

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실적 격차가 그룹 경영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효성은 AI 혁신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AI중심의 투자 경험을 다수 보유한 효성벤처스의 역량을 그룹 차원에서 적

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도 평소 “AI가 효성의 미래”라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HS효성 역시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회를 모색하면서 형제간 AI를 둘러싼 투자 및 기술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AI 기술 혁명은 앞으로 깊이의 싸움”이라며 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HS효성은 AI 기반의 미래형 소재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 자체 기술 조직인 HS효성 종합기술원(HARTI)을 창립해 첫해부터 연구인력을 30% 이상 늘리는 등 기술 심화 전략을 실천 중이다.

조현상 부회장은 HS효성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HS효성첨단소재의 알짜 사업인 1조 5000억원 규모의 타이어용 스틸코드 사업을 과감히

매각하며 주목을 받았다. 기존 주력 사업을 점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탄소섬유, 수소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효성 관계자는 “AI를 포함해 기존 산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을 그룹 차원에서 폭넓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투자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효성이 AI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룹인 만큼 내부적으로도 관련 사업을 더 키워갈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HS효성 관계자는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당사도 그룹내 사업들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려하고 있다”라며 “HS 효성인포메이션에서는 AI, 빅데이터, IoT 활용을 통한 기업혁신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졸리비, ‘노랑통닭’ 품었다… K-브랜드 세계 수출 본격화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컴포즈커피’ 이어 두 번째 인수
노랑통닭, 동남아 진출 교두보
“한국, 브랜드 수출 허브로 본다”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그룹(Jollibee Foods Corp.)이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인수를 잇따라 단행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를 품에 안은 데 이어 최근에는 치킨 브랜드 ‘노랑통닭’까지 인수를 추진 중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졸리비의 한국법인 졸리케이는 최근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코스톤아시아가 공동 보유한 노랑통닭 운영사 ‘노랑푸드’ 지분 100% 인수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지난 달 1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조만간 상세 실사에 착수한 뒤 이르면 8월 중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상 거래가는 1000억원 중반대로 알려졌다.



노랑통닭

큐캐피탈과 코스톤은 2020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노랑푸드를 약 700억원에 인수한 뒤 가맹점 수를 대폭 늘려 외형을 키웠다. 2019년 400여 개였던 가맹점 수는 올해 700개를 넘어섰고, 매출도 502억원에서 1067억원, 영업이익은 65억원에서 12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컴포즈커피

/손진영 기자

앞서 졸리비는 지난해 7월 엘리베이션PE와 함께 컴포즈커피를 약 47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컴포즈커피는 현재 졸리비가 보유한 브랜드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가진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해 이미 두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외식업계에서는 졸리비의 이 같은 행보가 한국 브랜드를 인수해 다시 해외로 역수출하려는 ‘플랫폼 전략’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졸리비는 현재 미국·캐나다·중동·유럽 등 15개국에 23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K-프랜차이즈를 수출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졸리비는 고급 외식보다는 가성비와 대중성을 강조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으며, 이번 컴포즈커피와 노랑통닭 인수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다. 직접 브랜드를 육성하기보다 현지에서 이미 소비자 충성도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브랜드를 ‘돈으로 사들이는 방식’은 리스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졸리비는 한국을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동남아와 북미 진출을 위한 브랜드 수출의 허브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검증된 브랜드

와 운영 매뉴얼은 졸리비의 글로벌 유통망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졸리비가 본래 브랜드인 패스트푸드 체인 ‘졸리비’를 한국에 직접 출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졸리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노랑통닭과 같은 외식 브랜드를 통해 치킨·버거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한국 시장은 이미 맥도날드·버거킹·맘스터치·롯데리아 등 국내외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소비자 트렌드 변화도 빨라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처드 신졸리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한국 치킨 시장이 매우 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졸리비 브랜드가 진출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치킨에 대한 입맛은 매우 달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3자간 경영합의’ 변수 되나… 콜마, 경영권 분쟁 새 국면

윤여원, 임시주총 저지 가처분 신청
운동법 법적 대응… 합의위반 쟁점화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인 ‘3자간 경영합의’ 내용이 처음 공개되면서 남매 간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BNH) 대표이사 사장이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부회장은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윤여원 사장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최근 윤 부회장은 콜마BNH의 부진한 실적을 문제 삼으며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일 콜마홀딩스는 콜마BNH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리포지셔닝하며 쇄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사장 측은 이에 대해 남매와 부친인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3자간 경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사장은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

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사장이 콜마BN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사장 측은 이 같은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이자 윤 사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G7 끝나자 울산·광주로… ‘쉽 없는 행보’

〉 1면 ‘추경·외교·민생까지…’서 계속

내란 이후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추경은 오는 3~4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 스타일은 정상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1박 4일의 빠른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정상회

담을 하고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도 챙겼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첨단 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공항 이전 관련 TF 설치를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